

父母의 温情, 統制 및 兄弟姊妹環境에 따른 兒童의 親社會的 行動

The Effect of Parental Warmth, Control and Children's Siblings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聖心女子大學 家庭管理學科
講師 李英珠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Seongsim Women's College.

Lecturer : Yeong-Joo Lee.

目 次

I. 問題의 提起	V. 結課 및 解釋
II. 理論的 背景	VI. 結論
III. 研究問題 및 變數의 定義	參考文獻
IV. 研究方法 및 節次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s related to ① their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control and the relationship of this perception to parent's job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② their siblings ③ children's sex.

The subjects were 220 third grade children selected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instruments were a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scale and a peer rating prosocial behavior scale. Frequencies, percentiles, mean, Pearson's correlation,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é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warmth, control,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e children who perceived more parental warmth and control were rated more prosocial by their peers.
2. Children whose parent's were above college graduates and white collar jobs perceived more parental warmth and control.
3.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ibling number, birth-order, and sibling structure.
4. Girls were rated more prosocial than boys.

I. 問題의 提起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과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대사회가 상호협동보다는 개인적 승리에 가치우위를 두는 사회분위기를 초래했고, 인간 서로간의 갈등까지 빈번하게 대두되면서 人間行動의 肯定的 側面인 親社會的 行動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親社會的 行動(prosocial behavior)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自發적 動機를 토대로해서 수행되는 행동(Berkowitz, 1972)으로서, 우리사회의 현실이 아동의 부정적 행동규제를 위한 훈육에 역점을 두어 왔음을 감안할 때 보다 能動的인 訓育過程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방지하고 제거하려는 노력보다는 타인을 돕고 따뜻하게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適應的인 社會人을 양성함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Baumrind, 1971). 그러므로 아동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수정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우호성, 책임성 등의 친사회성을 길러줌으로써 개인간의 對立意識보다는 모두가 共存하는 社會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한 개인이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보았을 때 어떤 긍정적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도움, 협동, 나눔, 위로 등의 다양한 행동영역들이 이에 해당된다(배선희, 1983). 지금까지 개인이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이 변수들은 크게 세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Perry & Bussey, 1984 : 234~261).

첫째는 個人的, 發達的 變數로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등을 들 수 있고, 둘째는 社會的, 文化的 變數로서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규범의 집합으로서 가정환경의 제반 변수들이 이에 해당되며, 셋째는 狀況的 變數로 제삼자의 존재, 당시의 주위 분위기, 당시의 개인적 감정상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특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社會文化的 變數는 개인이 성장하는 환경의 영향에 대한 것으로 아동기에 있어서는 특히 가정환경이 대표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아동에게 가

정은 최초의 가장 강력한 직접환경이 되며 그 중에서도 父母는 직접적으로 여러 자극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환경을 조작하고 환경의 한계를 설정하는 다른 환경자극의 仲介者 役割도 수행한다(한충효, 1984 : 8~11). 또한 가정의 兄弟姊妹는 사회적응을 위한 협동, 갈등, 경쟁, 지배 등의 다양한 기초적 원리를 학습하는 중요한 대상인데, 현대의 가족의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가족내에서의 인간관계의 폭이 축소되는 만큼 형제자매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친사회적 행동의 發達的 變化나(Bar-tal, 1982 ; 이점숙, 1984) 特定狀況變數 設定時의 친사회적 행동발생(Staub, 1970 ; Staub & Noernberg, 1981)에 대한 실험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家庭環境要因이 친사회적 행동발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 父母의 養育態度와 兄弟姊妹環境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장 보편적인 하위차원으로 평가되는 溫情과 統制의 두영역을 중심으로(Perry & Bussey, 1984 : 78~109). 형제자매환경은 兄弟數, 出產順位, 性別兄弟構造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며, 아울러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Gecas, 1979)을 고려, 부모의 教育水準과 職業地位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온정과 통제 차원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아동의 性別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차이유무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친사회적 행동의 개념정의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란 용어는 Wispe(1972)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공격적 행동의 대조가 되는 동정심, 나눠주기, 이타행동 등 인간행동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

해 이 용어를 제시했다.

친사회적 행동을 心理的 側面에서 좀더 명확하게 규명해 보자면, 이타행동같은 가장 비이기적인 행동에서부터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동기화된 도움 행동까지 모든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Rushton, 1980) 自發的으로 행해지고, 좋은 일이라는 客觀的인 是認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Leed, 1963). 따라서 나눠주기(sharing), 도와주기(helping), 증여(donating), 관용(generosity), 이타행동(altruism), 협동(cooperation), 친절(kindness), 동정(sympathy) 등의 다양한 영역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포함될 수 있다(Bal-Tal, 1979).

이상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타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自發的으로 행해지고, 타인에게 肯定的 評價를 받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2. 兒童의 親社會적 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

(1) 父母의 溫情과 統制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서 아동의 인성이나 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유안진, 1985 : 130). 그러나 양육태도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해서 실제 연구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위차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과 통제라는 두가지 차원을 설정했다. 이는 온정과 통제가 가장 많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양육차원(Rohner & Rohner, 1982 ; Perry & Bussey, 1984 : 99)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부모의 온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자녀에 대해 칭찬, 격려 등의 강화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온정은 대체로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특성들과 正的인 關係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부모가 온정적 태도를 많이 보일 때에 아동은 사려성, 이타성이 높고 낮은 공격성을 보이며(Becker, 1964) 부모를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각하는 아동이 보다 관대하고 위로적이고 협동적인 특성을 지닌다(Hoffman & Saltzstein, 1967 ; 이경희, 1978).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양육차원인 부모의 통제는 학자들마다 그 정의나 측정척도를 다양하게 설정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가 단순히 아동의 자유를 얼마나 制限하는가의 정도를 통제로 정의 내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아동에게 스스로의 役割에 대한 높은 責任感과 보다 成熟된 行動을 요구하는 정도를 통제로 보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後者의 정의를 택하였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前者의 權威的·制限的 統制를 다루었고 그 결과 아동의 인성 특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한중해, 1980), 肯定的이면서 積極的 統制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그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인간은 누구나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내에서 여러 종류의 집단에 소속되며 어떤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데 이렇게 각자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내용에 따라 다른 사회적 지위를 얻게된다. Kohn(1979)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치관을 매개로 하여 양육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중 특히 教育水準과 職業地位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이 두 변수가 주된 구성요소임을 지적했다.

Kohn에 의하면 사무직(white collar occupation)과 생산직(blue collar occupation)의 직업적 조건의 성격은 어떤 특정한 적응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이것이 곧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아동에게 전달된다. 가령 사무직은 개인에게 전형적인 사고, 상징 및 對人關係面을 강조하는 반면, 생산직은 신체적, 물리적인 사물을 다루도록 요구하며, 대인적 기술은 덜 요구한다. 이러한 직업조건의 차이는 가치나 신념의 차이를 낳으며 이것이 다시 부모의 양육태도차이를 낳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양육태도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教育水準은 지적 유연성과 조망의 다양성이라는 가치 수립에 직접 영향을 주면서 아울러 직업에 따른 생활조건차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권위적 제재보다는 心理的 報償이나 制裁를 더 많이 사용하고(김영주, 1989),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공인숙, 1989)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제차원에 있어서는 기

존연구의 대부분이 자녀의 자유나 행동을 얼마나 제한하느냐에 대한 권위적, 제한적 통제와 관련시킨 것이어서(장안효, 1968; 한종혜, 1980; 이원영, 1987)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의 유도라는 의미에서 부모의 통제가 부모의 직업지위나 교육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명이 요구된다.

(2) 兒童의 兄弟姊妹環境

아동의 兄弟姊妹는 사회화 과정에서 상호고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왜냐하면 아동은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인식, 집단적 소속감을 확립하고, 대인관계의 기초인 협동, 경쟁, 지배 등의 원리를 학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화 과정은 형제자매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른 과정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役割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長子女는 교사나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해서 동생들에게 양보와 아량을 베풀도록 요구되어지며 동생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판단자의 역할도 맡는다(유안진, 1982: 96). 이에 비해 次子女는 학습자나 추종자의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장자녀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질투심과 경쟁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김경희, 1987). 또한 막내는 부모로부터 각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아 의존적이며 책임감이 낮다고 알려졌다. 반면에 장자녀가 동생출생이후 경험한 결손감으로 인해 차자녀보다 적대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Abramovitch et al, 1982)도 있으며, 출생순위에 따라서 아동이 부모의 태도를 지각함에는 별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한미현, 1989)도 있어 보다 확실한 관계규명이 요구된다. 또한 獨子의 경우 대인관계 경험의 부족으로 사회성이 결여되기 쉽고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Jiao & Ji, 1986)는 견해가 있어, 兄弟數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또 異性의 형제간보다 同性의 형제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고(Bowerman & Dobash, 1974) 특히 姊妹간에서 친밀하고 우호적인 행동을 많이 경험하게된다(김상희, 1982)는 연구결과들로 보아 性別兄弟構成 역시 아동의 사회화 과정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의 형제자매 환경과 발달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그 결과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해 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兄弟數, 出生順位, 性別兄弟構成 環境에 따라 가정내에서 경험하는 서로 다른 사회화의 과정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아동의 性別

아동의 性別에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일관성있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먼저 性別差異의 존재를 주장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White(1972)는 女兒가 또래친구에 대해 더 관대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그 행동의 안정성도 높다고 했으며, Skarin과 Moely(1974) 역시 여아는 또래친구와의 놀이상황에서 위로적이고 협동적임에 비해 남아는 경쟁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여아의 높은 친사회성에 대해서 Bardwick과 Douvan(1971)은 일상생활에서 경쟁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비감정적 행동에 대해 주로 強化를 받는 남아와 비경쟁적, 복종적, 감정적 행동에 대해 주로 強化를 받는 여아와의 差別的 社會化環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친사회적 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Stanhop 등(1987)은 아동들의 도움행동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주장했으며, Yarrow 등(1976)도 3~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 Zabotany 등(1985)은 몇몇 연구에서 성별차이를 밝힌 까닭은 尺度의 성격이 여아에게 더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평가자의 性別統制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측정방법에서의 오류때문이라고 지적, 성별차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측정문항이나 평가자 선정에서 타당성이 있는 측정방법을 사용해서 성별차이에 대해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III. 研究問題 및 變數의 定義

1. 연구문제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은 아동이 지각한 父와 母의 温情, 統制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父와 母의 직업지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父와 母의 温情, 統制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父와 母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父와 母의 温情, 統制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은 아동의 兄弟姊妹環境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은 아동의 性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변수의 정의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장에서 자발적으로 노출되는 긍정적 사회행동들로서 하위요인으로는 도움행동(helping), 나눔행동(sharing), 협동행동(cooperation), 위로행동(comforting) 등 4개영역을 설정했다. 각 영역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Ianotti, 1985).

도움행동은 자신의 도움이 요구되는 여러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행동을 보임이고, 나눔행동은 자기몫의 물건을 친구들과 나눠서 가지거나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동이며, 협동행동은 청소기간, 놀이시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아동과 서로 도와가며 과정을 수행하는 행동이고, 위로행동은 친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예의바르게 대하는 행동이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温情次元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칭찬, 격려등의 긍정적 강화를 적용하며, 반대극단은 무시, 거부, 처벌 등의 권위적 제재를 많이 적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統制次元은 부모가 자

녀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설정 요구하며, 반대극단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자녀가 하는대로 허용, 방임하는 특성을 보인다.

아동의 형제수는 독자,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하며, 출생순위는 장자녀, 차자녀, 막내, 독자의 네집단으로, 성별형제 구성은 동성형제, 동성자매, 이성형제, 독자의 네집단으로 구분했다.

부모의 직업지위는 홍두승(1983:74)의 "직업분류를 통한 계급고찰"을 참조, 직업에 있어서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과 직업이 요구하는 숙련도를 기준으로 하여 구중간 계급직 이상을 專門職. 근로계급직 이하를 非專門職으로 구분하였으며, 母의 경우 비취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직, 비전문직, 비취업의 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IV.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對象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국민학교 3학년생으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만 9세경에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이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를 보이므로 발달의 個人差에 따르는 결과의 왜곡이 최대한 통제될 수 있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설정된 연구문제를 고려하여 대상의 표집은 비교적 중상류층에 속하는 강남구의 D국민학교, 마포구의 S국민학교와 중하류층에 속하는 도봉구의 S국민학교, 강서구의 Y국민학교 등 4개 학교의 245명을 유의 표집하였다. 조사결과 부실 기재된 경우와 편부모슬하의 아동분 25부를 제외한 22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조사 이전에 문항 분석과 아동의 응답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포구의 S국민학교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해서 문항을 수정, 보완했으며 1989년 12월 2일부터 15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본 조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9년 4개월이었으며, 성별은 남아가 120명으로 전체의 54.5%, 여아가 100명으로 전체의 45.5%로서

여아의 비율이 약간 낮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父의 경우 고졸 이하가 88명으로 전체의 40%,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이 132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母의 경우 고졸이하가 123명으로 55.9%, 대졸 이상이 97명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직업지위는父의 경우 전문직이 117명으로 53.1%, 비전문직이 103명으로 46.9%를 차지했으며, 母의 경우 비취업이 138명으로 62.7%, 비전문직 61명으로 27.7%, 전문직이 21명으로 9.5%를 보였다.

2. 調査道具 및 節次

(1)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또래평가(peer rating)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측정에는 관찰, 실험, 또래평가, 교사평가, 자기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친사회적 행동들을 일상생활속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또래에 의한 평가방법이 가장 적절하며 또한 시기적으로 평가시점이 학년말인 12월로 아동들이 서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또래평가의 타당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評價者는 성별에 따른 평가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각 학급에서 임의추출된 남녀아동 각 2명씩 4명으로 하고, 평가되는 친사회적 행동은 도움행동, 협동행동, 나눔행동, 위로행동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Shigetomi et al, 1981; Iannotti, 1985) 학습활동, 자유놀이, 청소 등의 다양한 학교생활 상황에서의 행동특성들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각 하위척도는 5개 문항씩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likert 척도로 작성되었다. 또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장에 긍정적, 부정적 표현이 골고루 나타나도록 했고, 부정적 표현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방향으로 점수를 주었다.

언어진 점수는 각 영역 별로 평가자 4명에 의해 평가된 점수를 평균해서 산출했으며 따라서 각 영역 별 점수분포는 최저 5점에서 최고 20점까지 이른다.

측정도구의 妥當度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서

울대학교 아동학 연구실원 3인을 통해 검증 받았으며, 信賴度는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X프로그램의 Cronbach α 모델에 적용, 도움행동 문항의 신뢰도 $\alpha = .82$, 협동행동 $\alpha = .78$, 나눔행동 $\alpha = .74$, 위로행동 $\alpha = .86$ 의 값을 얻었다.

(2) 부모의 온정 및 통제척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료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정도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하였다. 이는 부모자신의 보고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에 대한 보고가 아동의 인성과 더 높은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성연, 1981; Rohner, 1986: 102)에 근거를 두었다. 또한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가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父와 母에 대한 자료를 각각 독립적으로 수집했다. 문항구성은 Baumrind (1971), Rohner(1986), 김재은(1974), 이원영(1983) 등을 참고로 하고, 학업, 친구관계, 형제관계, 정리정돈, 청결, 식사습관, 소비생활 등의 소영역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체적 상황들을 항목으로 구성했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온정과 통제 각 15문항이 선정되었고, 이를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의 점수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의 분포를 갖게된다.

측정도구의 작성을 위해서는 예비조사와 아동학 연구실원 3인을 통해 妥當度를 검증받고, 信賴度 검증을 위해서 역시 Cronbach α 모델을 적용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문항 중 父의 온정 $\alpha = .68$, 母의 온정 $\alpha = .65$, 父의 통제 $\alpha = .74$, 母의 통제 $\alpha = .73$ 의 값을 얻었다.

(3) 조사절차

예비조사는 연구자가 아동들과 한 문항씩 읽어가면서 직접 실시, 아동의 질문 이해도를 파악했고, 본 조사시에는 먼저 학급의 담임선생님에게 조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응답절차는 먼저 연구대상 아동에게 부모의 양육태도척도를 배부, 한 문항씩 읽어가며 응답하도록 했으며, 방과후 평가자 4명이 과학실에 남아 친사회적 행동척도에 대한 또래

평가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 PC+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 Personal Comput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점수,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점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고,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에 따른 양육태도차이, 형제자매환경,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차이유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 t-test를 적용했고, 일원분산분석에 따른 추후검증을 위해 Scheffé검증을 적용하였다.

V. 結果 및 解釋

1.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温情, 統制의 一般的 傾向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은 각 하위영역별로 <표 1>과 같이 나타남으로써 비슷한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었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를 더 온정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어머니가 愛情的이면서도 統制的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정정순, 1972 : 83 ; 이원영, 1987 : 375)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2. 부모의 温情, 統制와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통제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서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父와 母의 온정, 통제점수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점수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온정차원의 경

표 1 하위영역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경향

친사회적 행동	N	평균	표준편차
도움행동	220	13.08	2.43
협동행동	220	13.54	2.11
나눔행동	220	13.10	1.88
위로행동	220	13.25	2.36

표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과 통제

양육태도	부 모	N	평균	표준편차
온 정	부	220	44.71	6.29
	모	220	46.19	6.14
통 제	부	220	40.61	7.66
	모	220	43.47	7.38

표 3 부와 모의 온정적 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도움행동	협동행동	나눔행동	위로행동
부	.2495***	.2568***	.1584**	.2233***
모	.2217***	.2461***	.2182***	.2177***

** p<.01 *** p<.001

표 4 부와 모의 통제적 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도움행동	협동행동	나눔행동	위로행동
부	.0791	.1151*	.0281	.1102*
모	.1979**	.2143***	.1682**	.2156***

*p<.05 ** p<.01 *** p<.001

우 父와 母를 온정적이라고 지각 할수록 도움, 협동, 나눔, 위로 등의 모든 친사회적 행동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것은 부모가 온정적일수록 아동은 보다 바람직한 대인관계특성을 형성한다는 Becker (1964), Hoffman & Saltzstein (1967), 정문자, 안진석 (198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동이 부모를 온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부모의 교육에 대해 반응적이고 안정감을 지니게 되어서 부모가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내면화하게 되어, 또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이타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통제차원 역시 父와 母 모두 대체로 친사회적 행동과 正的인 相關을 보이고 있는데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母는 전행동영역에 걸쳐서, 父는 협

동행동, 위로행동영역에서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대체로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에 정적 관련성을 보인 것은 부모가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해야 할 일들을 설정하고 지도해 줄수록 도움성, 협동성, 이타성 등이 높다는 Baumrind(1971), Maccoby(1980), 이미정(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에서 비교적 통제성을 많이 지니는 한국적인 환경에서(김재은, 1974) 보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요구된다. 또한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있어父의 경우가 母에 비해 그 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어머니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의 職業地位와 教育水準이 높은 경우 보다 아동에 의해 온정적으로 지각된다(표 5, 표 6). 즉 전문직 집단과 교육수준 대졸 이상인 집단이 비전문직집단과 고졸이하인 집단에 비해서 각각 보다 온정적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보다 親愛의인 가정환경을 조성

한다는 김진순(1984), Sarason(1966)의 연구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온정적이라는 이원영(1987), 공인숙(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母의 직업지위에 있어서는 비취업모와 전문직모 사이에는 별차이가 없으나 이들 두집단과 비전문직모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비전문직모가 낮은 온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母의 취업자체보다도 직업의 性格이나 직업에 대한 満足度에 따라서 취업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유안진, 1985 : 157)을 의미하며, 전문직 취업모의 경우 自我實現感으로 인한 만족도가 자녀 양육태도에 肯定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통제적 태도 역시 온정차원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표 7, 표 8)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과 전문직 취업집단이 고졸이하, 비전문직 취업집단에 비해서 각각 보다 통제적인 것으로 지각된다. 이는 전문직 부모일수록 아동에 대해 支待의이며, 合理的인 통제를 행사한다는 Kohn(1977), Peterson & Peters(1985)의 견해와 일치하며, 중류층 부모가 하류층 부모보다 더 통제적이고 지원적이라는 김재은(1974 : 29)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아울러 母의 직업지위면에서 전문직모가

표 5 부와 모의 직업지위에 따른 온정적 태도

부모의 직업		온정적 태도			
		N	평균	T	
부	전문직	117	46.02	3.34***	
	비전문직	103	43.22		
		N	평균	F	grouping
모	전문직	21	46.91	3.22*	a
	비전문직	61	44.51		b
	비취업	138	46.82		a

* p<.05 *** p<.001

표 6 부와 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온정적 태도

부모의 교육		온정적 태도		
		N	평균	T
부	대졸이상	132	45.74	2.99**
	고졸이하	88	43.16	
모	대졸이상	97	47.22	2.29**
	고졸이하	123	45.37	

** p<.01

표 7 부와 모의 직업지위에 따른 통제적 태도

부모의 직업		통제적 태도			
		N	평균	T	
부	전문직	117	41.76	2.40**	
	비전문직	103	39.29		
		N	평균	F	grouping
모	전문직	21	46.57	7.99***	a
	비전문직	61	40.54		b
	비취업	138	44.29		a

** p<.01

표 8 부와 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통제적 태도

부모의 교육		통제적 태도		
		N	평균	T
부	대졸이상	132	41.45	2.00*
	고졸이하	88	39.34	
모	대졸이상	97	45.24	3.32***
	고졸이하	123	42.07	

* p<.05 *** p<.001

보다 통계적으로 지각된 것은, 전문직 취업모들이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相互作用時間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해 높은 관심을 지니고, 바람직한 행동형성을 위한 적극적 통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아동의 兄弟姊妹環境과 親社會的 行動

아동의 형제자매 환경에 따라서 대부분의 친사회적 행동영역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형제수 2명인 경우 獨子에 대해서 도움, 협동, 나눔, 위로 등 모

든 행동영역에서 높은 친사회성을 보였다(표 9). 출생순위에서는 도움, 협동, 위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次子女가 비교적 높은 친사회성을 보인 반면 獨子의 경우 가장 낮은 친사회성을 보였으며(표 10), 성별형제구성에서는 同性姊妹集團에서 보다 높은 친사회적행동을 보였다(표 11). 이러한 결과는 김상희(1982), Whiting and Whiting(1975), Jiao and Ji(1986)와 일치하는 것으로 獨子인 경우 개인적 욕구충족의 기회가 많아 독립적이면서도 利己的인 경향을 지니게 되고, 또래형제와의 상호작용 경험의 부족으로 사회성이 결핍되기 쉽기 때문(Falbo

표 9 아동의 형제수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행동		도움행동			협동행동			나눔행동			위로행동		
형제수	N	평균	F	grouping	평균	F	grouping	평균	F	grouping	평균	F	grouping
獨자	14	11.05		b	12.11		b	11.61		b	11.46		b
2명	137	11.33	5.87**	a	13.84	5.65**	a	13.22	4.92**	a	13.41	4.50*	a
3명 이상	69	13.00		a	13.22		ab	13.17		a	13.28		a

*p<.05 **p<.01

표 10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행동		도움행동			협동행동			나눔행동			위로행동		
출생순위	N	평균	F	grouping	평균	F	grouping	평균	F	grouping	평균	F	grouping
장자녀	66	13.31		a	13.66			13.15			13.25		bc
차자녀	105	13.35	4.38**	a	13.75	2.97*		13.23	2.37		13.68	4.56**	ab
막내	36	12.56		ab	13.17			13.08			12.58		bc
獨자	12	10.97		b	12.02			11.73			11.50		c

*p<.05 **p<.01

표 11 아동의 형제구성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행동		도움행동			협동행동			나눔행동			위로행동		
형제구성	N	평균	F	grouping	평균	F	grouping	평균	F	grouping	평균	F	grouping
동성형제	62	12.98		bc	13.42			13.19			12.83		ab
동성자매	27	14.20	5.22**	ab	13.91	2.63		13.50	2.65*		14.10	4.52**	a
이성형제	119	13.09		ab	13.66			13.10			13.45		ab
獨자	12	10.98		c	12.02			11.73			11.50		bc

* p<.05 **p<.01

& Polit, 1986)으로 볼 수 있다. 반면 次子女의 경우 부모로부터 보아 적극적으로 형제들과의 긍정적 관계유지를 요구받게 되어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유안진, 1985). 또 동성자매간의 경우 가정내에서 친밀하고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보다 많이 경험(한미현, 1989)함으로써 肯定的 對人關係의 基礎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아동의 性別과 親社會的 行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女兒가 보다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으며, 도움, 협동, 위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White(1972) Bryan(197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보다 경쟁적이고 비감정적인 행동을 주로 지지받은 남아와 비경쟁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지지받은 여아와의 社會化環境에서의 차이(Zussman, 1978 ; Zabatory, 1985)로 해석된다.

VI.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家庭環境의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부모의 온정, 통제와 아동의 형제수, 출생순위, 성별 형제구성,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규명했다. 아울러 부모의 직업지위와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태도에서의 차이를 규명,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의 가족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들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시된다.

첫째, 父母가 溫情的, 統制的일수록 兒童의 親社會的 行動 水準은 높다. 부모가 아동을 친밀하고 따뜻

하게 대한다고 지각할 때 아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정감과 온정적 부모에 대한 동일시, 모델링을 통해서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높은 친사회성을 보인다. 또한 부모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허용, 방임적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켜 줄수록 높은 친사회성을 보이게 된다.

둘째, 父母의 職業地位와 教育水準에 따라 溫情, 統制에는 차이가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보다 온정적이며, 자녀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전문직의 부모가 비전문직의 부모에 비해서 보다 온정적, 통제적이며 특히 전문직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의 상호작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취업모보다도 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적극적 참여를 보였다.

셋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兄弟姊妹環境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형제수 2명인 경우, 차자녀인 경우, 동성자매의 경우가 보다 높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으며 독자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친사회성을 보였는데, 자녀수의 감소로 한 자녀 가족이 보편화되어 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자인 아동의 원만한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도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女兒가 男兒에 비해서 대체로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토대로 이러한 성별의 차이를 사회화 환경에서의 차이로 해석했으나, 유전적, 환경적으로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추후규명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를 극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연구대상의 선정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3

표 1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도움행동		협동행동		나눔행동		위로행동	
성별	N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남	120	12.58	-3.48***	13.23	-2.39*	12.99	-.95	12.54	-5.23***
여	100	13.69		13.90		13.23		14.09	

* p<.05 *** p<.001

학년 아동을 유의표집했으므로 앞으로 광범위한 지역적 표집과 다양한 발달단계 설정으로 연구결과的一般化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둘째, 부모의 온정과 통제는 다양한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多次元的 概念인 만큼 각 차원을 보다 세분화시킨 척도를 개발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셋째, 아동의 형제자매환경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相互作用 할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앞으로는 연구대상을 특정 형제환경으로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인 차이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主要 家庭環境 變數들을 규명하고, 이를 사회구조적 관계망 속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아동기와 성장 이후의 대인관계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함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경희(1987).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3) 김상희(1982). 학령전 아동의 형제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김영주(1989). 취업모의 인지 훈육적 양육방식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이대출판부.
- 6) 배선호(1983).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타인중심적 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유안진(1982). *육아론*. 서울: 문음사.
- 8) 유안진(1985). *유아환경론*. 서울: 창지사.
- 9) 이경희(1978). 취학전 자녀의 사회성숙도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0) 이미정(1988).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9권, 1호, 47~62.
- 11) 이점숙(1985).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경향과 훈련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2) 이원영(1987).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13) 한미현(1989). 형제자매구조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행동에 따른 형제자매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4)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5) 한충효(1984). 가정의 환경적 과정변인과 아동의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6) 홍두승(1983). "한국 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 17) Abramovitch, R., Pepler, D. & Corter, C.(1982). Patterns of sibling interaction among preschool age children. In M. Lamb & B. Sutton-Smith(Eds.) *Sibling Relationship*.
- 18) Bardwick, J. M. & Douvan, E.(1971). Ambivalence : the socialization of women. In V. Gormick & B.K.Moran (Eds.), *Woman in Sexist Society*, N.Y. Basic Co.
- 19) Bar-Tal, D.(1976). *Prosocial Behavior*, N.Y. : John Wiley & Sons.
- 20) Baumrind, K.(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vol. 4. 1~103.
- 21) Becker, W.C.(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L.Hoffman & L.W.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Y : Russel Sage Foundation
- 22) Berkowitz, L. & Frieman, P.(1967). Some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217~225.
- 23) Bowerman, C. E. & Dobash, R.M(1974). Structural variations in intersibling aff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6. 48~54.
- 24) Bryan, J.H.(1971). Model effect and Children's imitat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 42. 2061~2065.
- 25) Bryan, J.H. (1975) "Children's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s" in E.M. Hetherington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6) Falvo, T and Polit, D.F.(1986). A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 child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0. 176~189.
- 27) Gecas, V.(1979).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socialization. In W.R.Burr, R.Hill, F.I.Nye & I.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Y. Free Press.
- 28) Hetherington, E.M.(1975)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Chicago Univ. Press.
- 29) Hoffman, M.L. & Saltzstein, H.D.(1976).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Vol 5. 45~57.
- 30) Iannotti, R.J.(1985).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s of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1. 46~55.
- 31) Jiao, S and Ji, G.(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al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57. 357~361.
- 32) Kohn, M.L.(1977). *Class and conformity : A study in Values*. Homewood, III : Dorsey. (2nd Ed. Published by the Univ. of Chicago Press).
- 33) Leeds, R(1963). Altruism and the norm of giving. *Merill-palma Quarterly*. vol 9 229~240.
- 34) Medinnus, G.R & Johnson, R.C(1969).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N.Y : John Wiley and Sons, Inc. 341~389.
- 35) Mussen, P.H., Conger, J.J. & Kagan, J(1969). *Child Development and Psychology* (3rd ed.) N.Y : Harper & Row.
- 36) Perry, D.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Y : Prentice-Hall Inc.
- 37) Peterson, G.W. & Peters, D.F.(1985). The socialization values of low-income appalachian white and rural black mothers :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16.75~91.
- 38) Rohner, R.P. & Rohner, E.C.(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 cross cultural codes. *Ethnology*. vol 20.245~260.
- 39) Rushton, J.P(1976) Socialization and the altruistic behavior of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vol 83. 898~913.
- 40) Shigetomi, C.C., Hartmann, D.P. & Gelfand, D.M.(1981).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altruistic behavior and reputation for helpful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4~4. 434~437.
- 41) Skarin, K. & Moely, B(1976) Altruistic behavior : an analysis of age and sex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vol 47. 1159~1165.
- 42) Staub, E(1975).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Y : General Learning.
- 43) Staub,E(1976). A child in distress : The influence of age and number of witness on children's attempts to hel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4. 130~141.
- 44) Staub, E. & Noerenberg, H(1981). Property rights, deservingness, reciprocity, friend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0. 271~289.
- 45) White, G.M(1972). Immediate and deferred effects of model observation and guided and unguided rehearsal on donating and stea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1. 139~148.
- 46) Wispe, L.G(1972). Positive forms of social behavior : An over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8~3. 1~19.
- 47) Yarrow, M.R. & Waxler, C.Z(1976). Dimensions and correlates of prosocial behavior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47. 118~125.
- 48) Zussman, J.U. (1978). Relationship of demographic factors to parental discipline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4. 685~686.